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Hymn 57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상안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룻기2:17-23	인 도 자
설 교	복은 쌓는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8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이오현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8월 19일 제55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복은 쌓는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기업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제조나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유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유통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인들이 은혜와 복을 유통하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복을 받기만 했지 받은 복을 나누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쌓아두기만 했지 세상을 향해 나누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쌓아두기만 하면 이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재고가 되고 맙니다. 재고는 짐입니다. 팔리지 않고 쌓인 재고가 기업을 넘어뜨리듯 나누지 않은 은혜와 복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못하고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년 농사가 너무 잘되어 더 이상 거둔 곡식을 자기의 창고에 쌓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둔 모든 곡식과 물건을 새로 지은 커다란 창고에 쌓아두고는 스스로 말하기를 **눅12: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눅12: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데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쌓아두면 창고에 가득 모아두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누린 풍요가 복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하거나 소유를 늘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 돈이나 소유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룻기는 유력자인 보아스가 가난한 이방여인 룻에게 베푸는 은혜로 가득차 있습니다. 보아스의 도움을 받은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도 풍성해졌지만 베풀고 나눈 보아스의 인생도 더욱 풍성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원리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자신이 누린 풍요로움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다면 보아스는 그저 당대의 유력자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이방여인 룻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룻 역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누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기에 보아스와 룻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품과 나눔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룻기는 룻의 인생의 역전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여인이자 과부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역전시켰다면 보아스 역시 룻을 만나 그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역전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여전히 이방여인의 아들로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룻을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보아스가 자신이 누린 은혜를 베풀고 나눌 때 비로소 생겨난 사건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풍성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원하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해처럼 점점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호수가 물을 흘려보내야 새롭고 신선한 물이 들어와 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오고 우리 삶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 받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그것을 나눌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완성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지난주 창립1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은혜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수고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남관희 집사님이 생일을 맞아 과일과 떡을 성도님들에게 대접합니다.**
4. **이현미 집사님이 모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5. **매주일 오후 2시부터 박종갑 장로님의 지도로 컴퓨터 교실이 있겠습니다.**
6.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640.00	
감사헌금:	$660.00	
주일헌금:	$10.00	
특별헌금:	$1330.00	**합 계: $2,640.00**

중보기도 제목

- 아프간 단기선교팀의 안전한 귀국을 도와주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